

세 겹 줄 사역

안태영선교사 기도편지

2024년4월

Jeudi 16 MAI 2024
Au Temple du Salin à 20h
SILOAM ENSEMBLE
Concert Lyrique
 Avec des chanteurs Coréens de la SCALA DE MILAN



Entrée gratuite
Libre participation
 au profit de l'Accueil de Réfugiés d'Orient



툴루즈 공연 포스터

BOUT DU PONT DE L'ARN **Mardi 14 mai 2024 à 20h30**
Salle polyvalente
"La Voix de la Paix"
CONCERT DE CHANTS LYRIQUES
 avec **SILOAM ENSEMBLE**
 Groupe coréen du fameux théâtre d'opéra italien "LA SCALA DE MILAN"
 Au profit de l'association **PAS SANS TOIT 81**



ENTRÉE GRATUITE



마자메 공연 포스터

CONCERT
Mercredi 15 mai 2024



LA VOIX DE LA PAIX
 3^e Edition
 CONCERT de voix lyriques
 par **Silom Ensemble**
 Des chanteurs Coréens professionnels formés à La Scala de Milan.

(De gauche à droite sur le visuel de l'affiche)
 M.Minsoo KIM (Bass)
 Mlle Jeonghyun BAEK (Soprano)
 M.Dongju WON (Baritone)
 Mlle Eunghye LEE (Soprano)
 Mlle Hanna JEONG (Mezzo Soprano)
 Mlle Sejeong PARK (Piano)
 M.Taehee KIM (Tenor)

> 20h
Temple d'Albi
20 rue Fonvieille
ALBI

Libre participation aux frais

Contact :
 Tél. 06 78 33 59 83
<https://albigois.epudf.org>



알비 공연 포스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난민돕기 자선 음악회 - 3교회 협력 사역

난민돕기 자선음악회가 5월14일, 15일, 16일 3일에 걸쳐서 툴루즈, 마자메, 알비 세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2018년과 2022년에 두번 공연이 있었고, 이번이

세번째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서 툴루즈 한인교회와 프랑스 개혁신교회 그리고 밀라노 한인교회등 3곳의 교회가 협력하였습니다.

프랑스 개혁신교회는 공연장소와 음악가들의 숙박을 제공하고, 툴루즈 한인교회는 음악회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밀라노 한인교회는 7명의 음악가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번 자선공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모두 각 도시의 이슬람 난민돕기 단체에 기부됩니다.

2018년과 2022년에 열린 음악회때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이번에도 다시 자선음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들이 3일 연속 공연을 하게 되고, 더우기 매일 100km를 이동해야 하는데 무사히 행사가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툴루즈, 마자메, 알비 세곳의 교회들이 지역사회에서 더 큰 힘을 얻고, 음악회를 통해 모금된 헌금을 통해서 프랑스 땅에 정착한 중동난민들을 위한 사역이 더 성장하여 질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3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 특송



부활주일 예배 후 프랑스 개혁신교회 앞에서

부활주일 3개 교회 연합예배 -한국, 프랑스, 독일

올해 부활주일예배는 프랑스 교회, 독일교회,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특히 툴루즈 한인교회는 예배 중 특송을 담당했는데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3개 국어로 찬양을 해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록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3개국의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3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 독일교회가 프랑스 교회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 교회는 종종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하였는데 부활주일 예배를 공동으로 드리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겉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4:12)의 말씀처럼 세 교회가 함께 할 때에 더 건고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 합니다.

프랑스는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초인데도 아침, 저녁으로는 거의 0도 가까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프랑스의 주요 농산품인 포도 농가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서 유럽과 프랑스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선교 동역자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이 땅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5월14일, 15일, 16일 개최되는 난민돕기 자선음악회가 잘 준비되고 마칠 수 있도록
2. 3회의 자선음악회를 통해 툴루즈, 알비, 마자메 세 곳의 지역교회가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3. 한국교회, 독일교회, 프랑스교회와의 연합사역이 계속 성장 할 수 있도록
4.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